

에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



줄리 코닐리어스-황
실화에 근거함

“인간이 선택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찬송가, 175장)

카리의 가족은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모여 앉았어요. 모두 경건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아빠는 카리의 동생 리브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감사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아빠가 리브를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에릭을 위해 기도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가 거들었어요. 엄마는 가족이 에릭을 위해 기도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켰어요.

에릭은 카리의 오빠예요. 에릭이 대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에릭과 카리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카리는 오빠와 함께했던 재밌는 모든 일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에릭은 엄마 아빠에게 더는 교회 회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카리와 카리의 가족은 너무 놀랐고 슬펐어요. 그래서 매일 밤 에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때로는 에릭이 성신을 느끼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아빠는 에릭의 마음이 밝아져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엄마는 에릭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에릭을 도와서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자주 기도했어요. 가족들이 했던 모든 기도를 생각해 보니, 카리는 조금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에릭을 교회로 다시 데려오시지 않는 걸까요?

결국, 리브가 기도하려고 입을 연 그때, 카리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카리가 불쑥 내뿔었어요. 모두 놀란 눈으로 카리를 쳐다보았지만, 카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죠.

잠시 동안,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리야.” 아빠가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 다녀왔을 때, 책가방은 잘 걸어두었니?”

“네?” 카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카리의 책가방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카리가 현관 쪽을 힐끗 돌아보니 카리의 가방은 리브의 가방 옆에 걸려 있는 대신, 바닥에 던져진 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엄마가 가방을 걸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니?”

“네.” 카리가 대답했어요. 카리는 고개를 숙여 무릎을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가방을 걸어 놓으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니?”

“네.” 카리가 투덜댔어요. 카리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카리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한 걸까요?

“우리가 에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문제는 에릭이 지금은 듣지 않는다는 거지. 에릭이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선택해야 하는 거야. 네가 엄마가 가방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고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너는 엄마가 가방을 걸라고 할 때 앞으로든, 계속 무시할 거니?”

“아니요, 아닐걸요.” 카리가 대답했어요.

“언젠간 내 말을 듣겠지!” 엄마가 카리에게 윈크하며 말했어요. 카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아마 에릭 오빠도 언젠가는 귀를 기울이겠네요.”

카리가 덧붙였어요.

엄마는 “물론이지” 하고 대답하셨지요.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이란다. 아마 에릭은 아직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 같구나.” 카리의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은 리브가 기도를 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리브는 에릭이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리브가 기도를

하는 동안, 카리는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리브가 가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동안, 카리는 그 받은 축복들에 추가할 또

한 가지 축복이 생각났어요. 이제 기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기도를 마쳤을 때, 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릭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분은 카리도 절대 잊지 않으시리라는 것도요. ■

글쓰이는 미국 네바다 주에 산다.

선택의지란 무엇일까요?

선택의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죠.